

柳宗元《捕蛇者说》

●原文：永州之野产异蛇，黑质而白章，触草木尽死；以啖【niè 咬】人，无御【yù 抵挡】之者。

■해석 :영주의 들에 특이한 뱀이 있는데 검은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었다. (그 뱀이) 초목에 닿으면 다 죽었고, 사람을 물면 독이 번지는 것을 그치게 할 약이 없었다.

○注释：1. 之：的。 2. 异：奇特。 3. 质：质地，东西的本体，这里指蛇的身体。

4. 章：花纹。 5. 尽：全部，都。 6. 啖：咬。 7. 御：抵挡。

8. 之：指代蛇。 9. 者：指办法。

▲翻译：永州的郊野生长一种奇特的蛇，黑色的皮质，白色的花纹；它碰到草木，草木都要死掉；如果咬人，没有什么办法医治。

●原文：然得而腊【xī 晾干】之以为饵【ěr】，可以已大风、挛踠【luánwǎn 指手足屈曲不能伸展之病。】、痠【lòu 부스럼 루】疔【lì 돌림병 려】，去死肌，杀三虫。

■해석 :그러나 그것을 잡아 포로 만든 뒤 약으로 쓰면 중풍이나 구루병과 악성 종양 등을 치료할 수 있고, 죽은 피부를 제거하고 삼시충을 없앨 수가 있다.

○注释：10. 腊：干肉这里作词，把肉晾干。 11. 以：用。 12. 饵：药饵。 13. 已：止，这里指治愈。

14. 大风：麻风病。 15. 挛踠：手脚弯曲不能伸展。 16. 痠：脖子肿。疔：恶疮。 17. 去：消除。死肌：死肉，腐肉。三虫：泛指人体内的寄生虫。

▲翻译：然而捕捉到这种蛇，把它晒干用作药饵，可以用来治愈麻疯、手脚拳曲、脖肿、恶疮，消除坏死的肌肉，杀死人体内的寄生虫。

●原文：其始太医以王命聚之，岁赋其二；募有能捕之者，当其租入。永之人争奔走焉。

■해석 :처음에는 어의가 왕명으로 그 뱀을 모아 들였는데, 일년에 두 차례 세금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잡는 사람을 모집하여 (잡은 뱀으로) 조세 내는 것을 충당하게 하니 영주의 사람들이 그 일에 앞다투어 나서게 되었다.

○注释：18. 其：指所要述说的事。 19. 太医：御医，皇帝的医生。聚：征集。 20. 岁：每年。其：指蛇。二：两次。 21. 募：招募。当：充抵。其：指能捕捉到蛇的人。入：缴纳。焉：代词，指这件事。

▲翻译：当初，太医用皇帝的命令征集这种蛇，每年征收两次，招募能够捕到这种蛇的人，让他捕蛇来抵他的租赋。永州的百姓争着干这差事。

●原文：有蒋【jiǎng】氏者，专其利三世矣。

■해석 :장씨라는 사람이 그 이익을 독점한 지 3대가 되었다.

▲翻译：有个姓蒋的，独自享受这捕蛇抵赋的好处已有三代人了。

●原文：问之，则曰：「吾祖死于是，吾父死于是，今吾嗣为之十二年，几死者数矣。」言之貌若甚戚【qī슬프다】者。

■해석 :그에게 물으니 “내 조부도 뱀 잡는 일 때문에 죽었고 부친도 그 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계승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죽을 뻔한 경우가 여러 차례입니다” 라고 대답

하였다. 그 말을 하는데 모습이 매우 애통해 보였다.

○注释：22. 嗣：继承。 23. 几：几乎，差点儿。

▲翻译：我问他，他却说：“我爷爷死在捕蛇抵赋这差事上，我父亲死在这差事上。现在我接着干这差事十二年了，有好几次差点儿死掉。”他说这些话时，脸色好像很悲哀。

●原文：余悲之，且曰：「若毒之乎？余将告于莅事者【lìshìzhě 地方官】，更若役，复若赋，则何如？」

■해석 :나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너는 그 일을 고통스럽게 여기는가? 내가 담당하는 관리에게 이야기 하여 너의 일을 바꾸고 세금을 회복시켜 주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였다.

○注释：24. 赋：征收，敛取。

▲翻译：我怜悯【liánmǐn 동정하다】他，并且说道：“你怨恨干这差事【chāishi임무】吗？我打算去告诉主管官，让他更换你的差事，恢复你的租赋，你看怎么样？”

●原文：蒋氏大戚，汪然出涕，曰：「君将哀而生之乎？则吾斯役之不幸，未若复吾赋不幸之甚也。

■해석 :장씨는 몹시 슬퍼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살려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일에 종사하는 불행은 저의 세금을 회복시켜 주는 불행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翻译：他大为悲伤，眼泪汪汪，说道：“您想哀怜我，让我能够活下去吗？那么我告诉您，我干这差事遭受的不幸，是远不如恢复租赋遭受的不幸的。

●原文：向吾不为斯役，则久已病矣。

■해석 :지난 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래 전에 이미 병들었을 것입니다.

▲翻译：要是先前我不干这差事，那我早已困苦不堪了。

●原文：自吾氏三世居是乡，积于今六十岁矣。

■해석 :우리 집안은 삼대 동안 이 마을에 살아와 지금까지 60년이 되었습니다.

▲翻译：自从我家住在这个地方，三代人到现在，已经六十年了。

●原文：而乡邻之生日蹙【cù 紧迫】，殍【dǎn 다하다.다쓰다】其地之出，竭其庐之入。

■해석 :그런데 이웃사람들의 생활은 날로 궁핍해져 땅의 소출을 다 버리고 집의 수입이 다 고갈되어

○注释：25. 殍：尽。

▲翻译：这六十年间，乡邻们的生活一天比一天窘迫，他们把田里的出产全部拿出，把家里的收入全部用尽，（也交不够租赋），

●原文：号呼而转徙【xī옮기다.이사하다】，饥渴而顿踣【dùnbó 跌倒】。触风雨，犯寒暑，呼嘘毒疔，往往而死者，相藉也。

■해석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굶주림과 목마름에 쓰러지고, 비바람을 맞으며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며 독한 기운을 호흡하여 종종 죽은 사람이 서로 깔고 누울 정도입니다.

○注释：26. 顿踣：跌倒在地上。竭：尽。 27. 犯：冒。

▲翻译：只得哭着号着辗转迁徙，饥渴交迫而倒毙在地，顶着狂风暴雨的袭击，受着严寒酷暑的煎熬，呼吸着带毒的疫气，常常是死去的人一个压一个。

●原文： 曩【nǎng 옛날.예전에】与吾祖居者，今其室十无一焉。

■해석 :예전에 나의 조부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집이 열 집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翻译：从前和我爷爷住在一起的人家，现在十户当中难得有一户了；

●原文： 与吾父居者，今其室十无二三焉。与吾居十二年者，今其室十无四五焉。非死即徙尔，而吾以捕蛇独存。

■해석 :저의 부친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열 집에 두 세 집도 남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에 저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집은 열 집에 네 다섯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으면 이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만은 뱀 잡는 일 덕분에 살아 남았습니다.

▲翻译：和我父亲住在一起的人家，现在十户当中难得有两三户了；和我一起住了十二年的人家，现在十户当中难得有四五户了。那些人家不是死绝了就是迁走了。联而我却由于捕蛇而独自存活下来。

●原文： 悍吏之来吾乡，叫嚣【jiàoxiào 큰 소리로 떠들어대다】乎东西，隳突【huītu 冲撞, 破坏, 骚扰】乎南北；呿【huà떠들썩하다】然而骇【hà깜짝 놀라게 하다】者，虽鸡狗不得宁焉。

■해석 :포악한 관리가 우리 마을에 와서 동서로 떠들어대고 남북으로 설치대며 소란을 피운다면, 비록 닭이나 개라 할 지라도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翻译：凶暴的官吏来到我们这个地方，四外狂喊乱叫，到处骚扰毁坏，气势汹汹，惊骇乡里，就连鸡狗都不得安宁啊。

●原文： 吾恂恂【xúnxún 공손하다. 겸손하다. 근신하다.】而起，视其缶，而吾蛇尚存，则弛然【chírán放心的样子】而卧。

■해석 :(하지만)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항아리를 보고서 내 뱀이 아직 살아 있으면 안심하고 다시 눕습니다.

○注释：28. 恂恂：小心谨慎的样子。 29. 缶：瓦罐【wǎguǎn 질항아리】。 30. 弛然：放心的样子。

▲翻译：我心中惦记，起身看看那瓦罐，蛇还在里面，我又放心躺下了。

●原文： 谨食之，时而献焉。退而甘食其土之有，以尽吾齿。

■해석 :또 조심스럽게 그것을 먹이며 때가 되면 그것을 바치고, 돌아와서는 제 땅에서 나는 산물을 편안히 먹으면서 내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翻译：我小心喂养蛇，到时候把蛇送上去交了差。回家后我有滋有味地吃着田地里长出的东西，来过完我的岁月。

●原文： 盖一岁之犯死者二焉，其余则熙熙而乐，岂若吾乡邻之旦旦有是哉。

■해석 :대체로 일 년에 죽을 뻔한 경우가 두 차례고 나머지는 희희낙락합니다. 어찌 이웃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통스러움이 있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翻译：一年当中冒死的情况只是两次；其余时间我就可以快快乐乐地过日子了。哪像我的乡邻们天天都有死亡临头呢！

●原文： 今虽死乎此，比吾乡邻之死则已后矣，又安敢毒耶？」

■해석 :지금 비록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이웃 사람들의 죽음에 비하면 이미 늦은 셈이니 어찌 감히 이 일을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翻译：现在我即使死在这差事上，比起那些死去的乡邻已经是要晚了，我怎么敢怨恨这差事呢？」

●原文： 余闻而愈悲，孔子曰：「苛政猛于虎也。」吾尝疑乎是，今以蒋氏观之，犹信。

■해석 :나는 이야기를 듣고서 더욱 슬퍼하였다.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일찍이 이 말을 의심하였는데, 지금 장씨의 경우로 보아 오히려 믿게 되었다.

▲翻译： 我听了他的话更加痛心。孔子说：“残酷的政令比猛虎还凶暴。”我曾经怀疑过这话，现在从蒋氏的遭遇来看，孔子的这句话仍然是可信的。

●原文： 呜呼！孰知赋敛之毒，有甚是蛇者乎！故为之说，以俟【sì 기다리다】夫观人风者得焉。

■해석 :아! 조세를 부과하고 거두는 해독이 이 뱀보다도 더욱 심할 줄 누가 알겠는가? 그런 까닭에 이 글을 지어서 저 백성의 풍속을 시찰하는 자가 알게 되기를 기다린다.

▲翻译：唉！谁知道租赋的祸害大大超过这种毒蛇之害的呢！因此，我为这事写了这篇“说”，以等待那些考察民情的人看到它。

주제：

通过捕蛇者蒋氏对其祖孙三代为免交赋税而甘愿冒着死亡威胁捕捉毒蛇的自述,反映了中唐时期中国劳动人民的悲惨生活,深刻地揭露了封建统治阶级对劳动人民的残酷压迫和剥削,表达了作者对劳动人民的深切同情.反映了当时“苛政猛于虎”的税收。